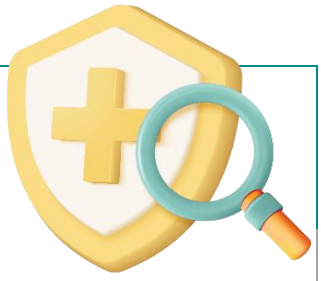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2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2월 2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코스닥이 올라 가는데 제약/바이오가 빠질 수 없다

1) 2026년 2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다** 매주 마다 무슨 일이 터지는 불안한 1월이었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와 같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위에 있는 종목에서 이슈가 터지니 Passive 수급적으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까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은 모두 파트너십의 실적 공시나 Earning call로 확인된 것으로, 아직 모든 주요 빅파마들이 이를 마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이 호재나 악재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1)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에 발생한 이슈는 분명 주가에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으나, 각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핵심적인 가치가 손상된 것은 아니다(ALT-B4 기능과 독점성은 손상되지 않음/α-Syn에 한정된 임상 계획 변경일 뿐, Grabody-B는 문제없음). 2) JPMHC 이후 여전히 많은 빅파마들의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도 그 성과를 기다려 봄 직 하다.
- **코스닥 바이오텍에 조금 더 집중.** 정부는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자 이제 코스닥 3000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하여 여전지 정부와 제약업계가 대치 중이다. 약가 인하 방향은 확실시된 듯 하나, 개편안과 시행일이 확정되면 주가에 일시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 코스닥 종목에 집중을 하되, 제약사 보다 바이오텍에 관심을 두는 편이 좋겠다. 한동안 조용하던 트럼프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것이 중국으로 옮겨가 더 높은 강도로 대치한다면 CDMO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시장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분명해진 에스티팜이 매력적이다. 한편, 약가 인하 분위기에서도 제약사에 대한 비중을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코스닥 제약사는 매출이 제네릭에서 나오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렵다.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R&D 모멘텀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기업이 좋은데, 대부분 코스피 종목이다. (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2) 2026년 2월 추천 종목

- **2월 코스피 Top pick(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1) 한미약품은 MASH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MK-6024)의 임상 발표가 '26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수한 실적으로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에도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했으나 주가가 부진하다. 아무래도 5공장 ramp-up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바라는 듯하고, 6공장 착공 소식이 그 확신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2월 코스닥 Top pick(변경): 리가켐바이오, 디앤디파마텍** 1) 리가켐바이오는 최근 수급 영향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고, 2~3월이 학회 일정 비수기 시즌이라 시기상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는 없다. 그러나 Enhertu가 장악한 ADC 시장에 post-Enhertu로서 내성 환자에 대한 솔루션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점에서 매력도가 높다. 또한 올해 다양한 파트너의 임상 발표로 기대하고 지켜볼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추가 upside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 디앤디파마텍은 JPMHC에서 Pfizer가 Long-acting에만 높은 관심을 보여준 이유 때문인지 부진해진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5월 데이터 발표 예정인 MASH 치료제 DD-01, 자회사 Neuraly와 퍼스트바이오가 공동개발한 NLY-02(RIPK2 저해제), 15% 지분을 보유한 RPT 의약품 개발사 Z-alpha 등 (Z-alpha는 Lilly Gateway Labs에 본사를 두고 있고, Lilly가 JPMHC에서 RPT modality에 관심을 보인 바 있음) 주가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달(2026년 1월) 하나 제약/바이오 리포트

[Biweekly] 새해 첫 달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전망 (1/5)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 2026년 상반기 4% 이하 전망하며 1분가까지 제약/바이오 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됨. 1월 다수 이벤트 발생 예정으로 추가수익 기대해 봄 직함
- 25년 12월 예상되었던 다수 바이오텍들의 기술이전, 마일스톤 이벤트들이 지연되었음. 여전히 협상 막바지 단계로 26년 초 이벤트 가능성 높음
- 1월 12~15일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로 섹터 기대감 확대. 글로벌 빅파마의 관심 분야와 잠재적 L/O 기업에 주목할 필요
- Top Pick: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 URL: https://buly.kr/FWUlZfK

[기업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4Q25 Preview: 다사다난 했던 25년, 무난히 마무리 (1/7)

- 4Q25 실적은 매출액 1조2,721억원(YoY+1.2%), 영업이익 5,605억원(YoY+78.1%, OPM 44.1%)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우려한 바와 달리 5공장 고정비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고 4Q에도 특이 사항 없을 것으로 전망. 다만, 인적분할 1회성 수수료 및 연말 특수성 비용 증가로 이익률 50% 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JPMHC에서 6공장 착공과 신규 modality CDMO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필요 있음
- 205만원으로 적적주가 상향. 5공장 상업화 매출 기대할 수 있는 27년 EBITDA에 peer multiple의 2배 프리미엄 붙인 34배 적용

➢ URL: https://buly.kr/9tCDOje

[산업분석] 제약/바이오: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6 리뷰 (관심 기업 중심) (1/15)

- 한미약품: Merck JPMHC에서 efinopegdutide 언급이 빠지며 실망감 있었으나, 발표 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2/3 예정된 Merck 4Q25 실적발표에서 업데이트 시 주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빅파마들은 비만(long acting), MASH, 알츠하이머, ADC, siRNA, 차세대 항암 등을 중장기 핵심 성장축으로 재확인
- 오름테라퓨틱의 CD33-GSPT1,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APA 확장 등 국내 기업 관련 내용도 존재

➢ URL: https://buly.kr/4Qocg9y

[Biweekly] 대형 행사 종료, 상승장의 신호탄은 누가될까 (1/19)

- JPMHC 기간 글로벌 빅파마 간 L/O·공동개발은 20건 이상 있었으나 국내 기업 성과는 전무해 섹터 실망감 확대
- 과거 패턴상 JPMHC 이후 1월 말부터 주가 회복 가능성은 높으나, 코스피 헬스케어는 실적 의존도 높으며 대외 리스크가 존재함. 코스닥 헬스케어는 주가 상승이 기대되나, 회복이 아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대형 기술이전 계약이 필요
- 약가 인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며 대부분 제약사가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어, 향후 정부-업계 합의 방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 Top Pick: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 URL: https://buly.kr/GP4BCD7

[기업분석] SK바이오팜 (326030): 가이던스 상단 근접할 것, 시장 확대로 26년도 성장 (1/19)

- Q25 실적은 매출 1,906억원(YoY+16.9%, QoQ-0.6%), 영업이익 483억원(YoY+18.8%, QoQ-31.1%, OPM25.3%)으로 전망. 미국 Xcopri 처방량(TRx)은 올해 매 분기 증가하였고, 이번 분기에도 QoQ+5.8%로 여전한 성장세를 확인하며 가이던스 상단 근접할 것으로 전망
- '25년 11월에 한국에서 세노바메이트가 허가, 일본도 2H26 내 허가를 획득하고 시판까지 기대되어 추가 매출 상승 예상
- 시장 확대에 따라 '26년과 '27년의 급격한 매출 상승이 기대되나, 2nd Product 도입이 수년간 늦어지며 목표주가 16만원 유지

➢ URL: https://buly.kr/ChqGb60

[기업분석] 한미약품 (128940):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 MASH도 문제 없어 (1/20)

- 계절적 영향과 자회사인 북경한미의 매출 회복, 정밀화학의 QoQ 흑자전환 성공으로 출과 이익 모두 컨센서스 상회
- 프롤리아BS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에페글레나타이드 매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 MSD에 L/O한 MASH 치료제의 임상2b상 결과도 모멘텀이 될 예정
- 섹터의 저조한 분위기 반전되고, R&D 이벤트만 받쳐 준다면 충분히 강한 upside 기대할 수 있음

➢ URL: https://buly.kr/15QFrGF

[기업분석] 알테오젠 (196170): 1조대 매출 제품도 SC제형화 해야 하는 속사정 (1/21)

- GSK(Tesaro)와 Jemperli SC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총 $285mn)로, 기존 Daiichi Sankyo-Enhertu SC 딜과 유사한 단일 품목·합리적 구조의 첫 계약 성과
- 매출 1조원 미만 파이프라인에 계약금 300억원 일시납, PD-1/PD-L1 경쟁 시장에서 IV-to-SC를 통한 시장성 확보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 딜
- SC는 에버그리닝을 넘어 시장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가는 중이며, Enhertu·Jemperli류 계약이 연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현금 유입 기대

➢ URL: https://buly.kr/2UkJtyu

[산업분석] 제약/바이오 이슈 브리프: 위기 속에 튼튼한 사과 나무 고르기 (1/22)

- 알테오젠 급락으로 코스닥 대장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아닌 하락의 주범이 되었고, 코스닥 바이오텍 뿐 아니라 코스피 제약사까지 전반적인 주가 하락세
- JPMHC에서 Eli Lilly의 Donanemab, RLT, Gene Medicine, siRNA에 대한 관심 확대가 확인되었기에 에이비엘바이오, 알지노믹스, 올릭스 등 관련 기업 주목
- 1/21 급락한 종목 중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디앤디파마텍 등은 '26년 기술이전·주요 임상 기대감이 있어 관심 필요하며, 한미약품은 MSD 이벤트를 앞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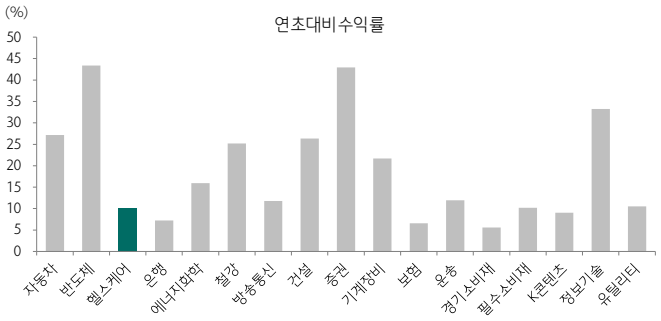
➢ **URL**: https://buly.kr/9tC9cfr

[기업분석] 알테오젠 (196170): 로열티 만큼 중요한 계약 수, 26년이 본격적 시작 (1/22)

- Merck Form-10Q에 Keytruda 로열티 2%가 기재되며 시장 예상(4~5%) 대비 큰 충격, $1bn sales-milestone 전액 수령 후에만 로열티 수령 구조 확인
- 계약구조 명확화로 현금 유입 규모·속도 조정하며 목표 주가 하향하나, Keytruda 외 제품 로열티율은 Darzalex SC 기준 3.2% 추정 유지
- '29년 EBIT 기준 Valuation으로 목표 주가 58만원 제시하며, 주가 회복의 핵심은 추가 L/O의 빈도와 예상보다 많은 계약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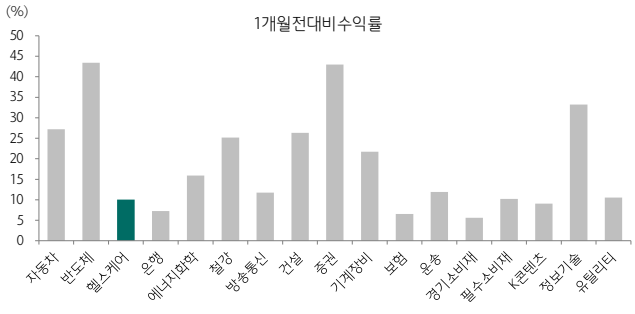
➢ **URL:** https://buly.kr/FLZe1oH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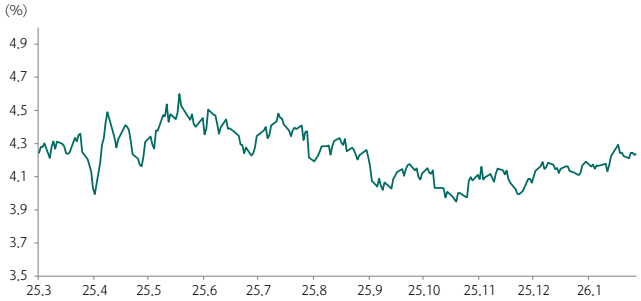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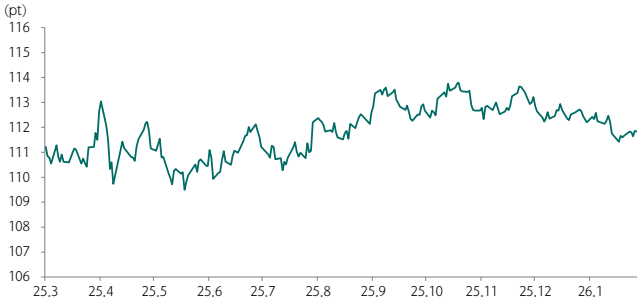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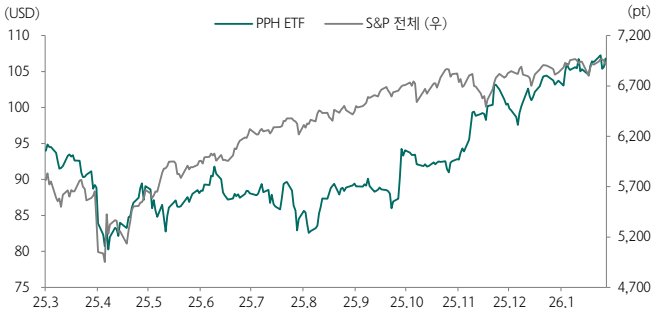
주: 1/31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



주: 1/31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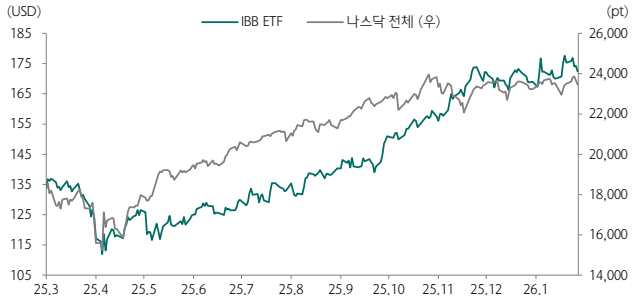
도표 5.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주: 1/31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0.73%), Novartis(10.03%), MSD(8.90%), Novo Nordisk(6.44%), Pfizer(4.62%), BMS(4.54%), Abbvie(4.38%), GSK(4.37%), McKesson(4.37%), AstraZeneca(4.3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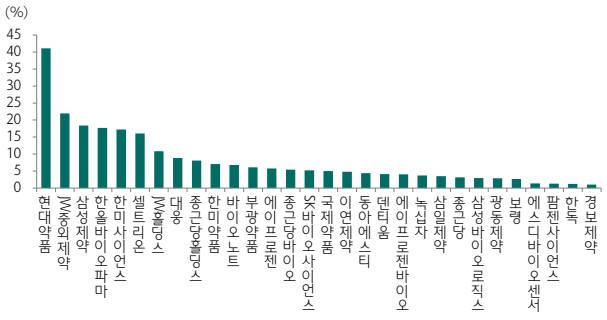
도표 6.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주: 1/31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Vertex(8.63%), Gilead(8.05%), Amgen(7.82%), Regeneron(6.89%), Alnylam(4.55%), Insmed(3.23%), argenx SE(3.00%), Natera(2.65%), Biogen(2.27%), BeOne Medicines(1.9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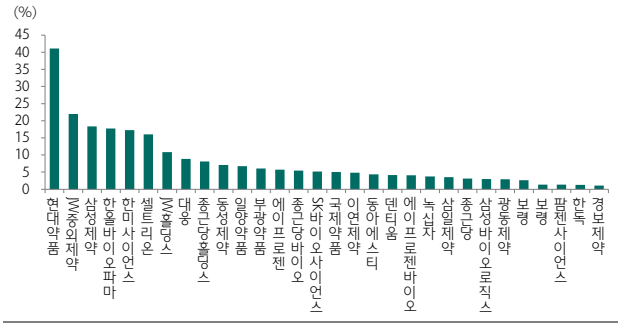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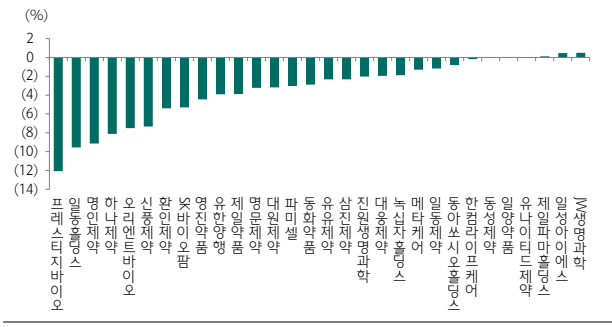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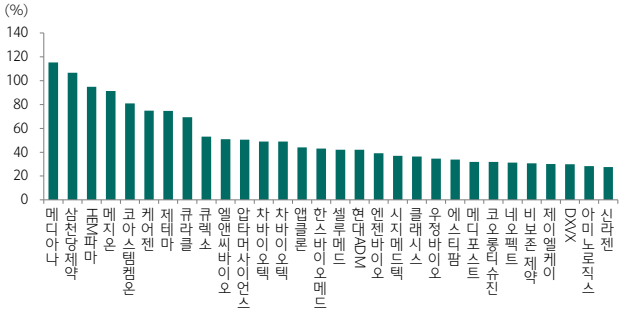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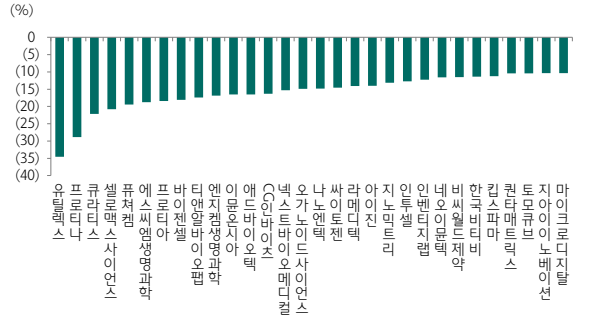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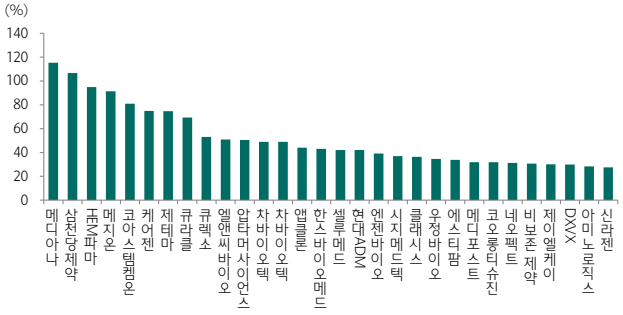
주1: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주2: 비엘팜텍은 노이즈로 제거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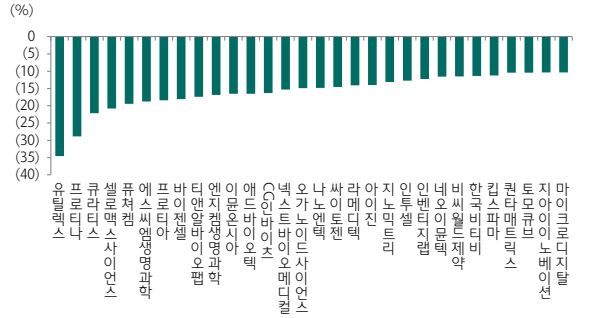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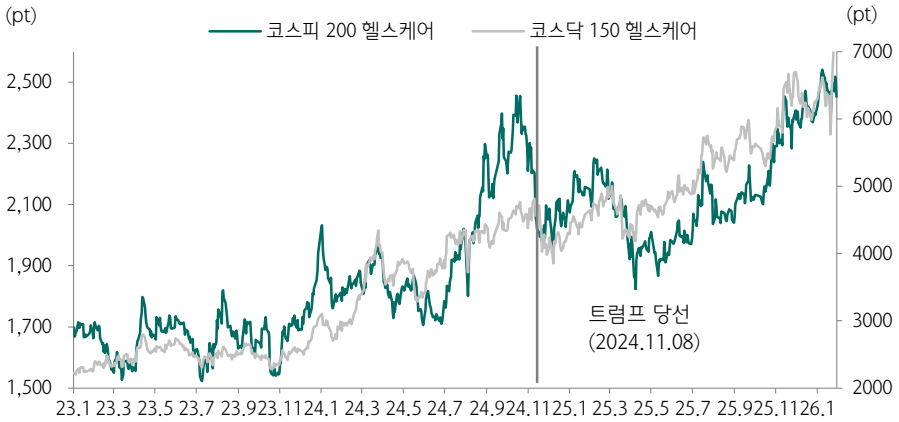
주1: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주2: 비엘팜텍은 노이즈로 제거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5. 트럼프 당선 전후 코스닥과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



주: 1/30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지난 달(2026년 1월 중순 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1/18 이후)

[1/19] AbbVie-Genmab, 공동 개발한 DLBCL

- Epcoritamab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 483명을 대상 임상3상 시험에서 1차 종결점인 OS 개선에 실패. 규제 당국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추가 결과는 학회에서 발표될 것
- Epcoritamab은 CD3xCD20 이중항체 T-cell engager (SC투여)로, 2023년 5월 DLBCL 3L 치료제로 FDA 가속승인 획득한 바 있음(ORR 61%, DoR 15.6개월). 미국과 일본에서는 엡킨리(Epkinly), 유럽 연합에서는 테프킨리(Tepkinly)라는 이름으로 림프종 질환 치료제로 판매 중. AbbVie는 2020년 Genmab으로부터 계약금 $750mn, 총 규모 $3.9bn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개발 해왔음

[1/19]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로 대어 상장 준비

- 면역조절 생물의약품 신약개발. 다가결합(multivalent) 항체 후보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백본 기술인 'ePENDY' 플랫폼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면역항암제, 안구질환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 보유
- 리드 파이프라인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OX40LxTNF 이중항체 'IMB-101'으로, 미국 Navigator Medicines(2024년 6월), 중국 화동제약(2024년 8월)과 각각 약 $950mn, $300mn 규모의 L/O 계약. 현재 각 파트너사가 임상1b상 진행 중. 최근 기술이전 규모로 기업가치를 매기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1.75조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

[1/20, 1/21] 알테오젠, Jemperli SC 제형 개발을 위한 독점 계약 및 Keytruda Qlex 로열티 논란

- (1/20) GSK의 자회사 Tesaro와 Jemperli(dostarlimab) SC 제형 개발을 위한 품목 독점 계약 체결. 계약금 $20mn (약 295억 원), 개발/허가/판매 마일스톤 $265mn (약 3,900억 원), 로열티 별도. Jemperli는 미국/유럽 등에서 자궁내막암, 재발성 진행성 고형암에 처방되는 PD-1 면역항암제. '21년에 FDA 가속승인 되었고, '25년 9월까지 연간 누적 매출 약 1.2조 원. 시장의 계약 규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이유로, 발표 후 주가 하락
- (1/21) Keytruda Qlex의 로열티가 MSD의 3Q25 분기 보고서 상 2%로 밝혀지며 주가 급락. 비공개인 로열티가 공개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점과, 시장의 기대 값이 4~5%인 상태로 1여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것이 시장의 실망감을 더 키웠음. 기대치가 낮아짐에 따라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었으나, 2개의 후보 파트너사는 실사 단계이고 GSK도 추가 기술이전 기대할 수 있어 회사가 약속한 바를 확인하며 주가는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

[1/20] GSK, 면역 조절제 개발사인 RAPT Therapeutics 인수 발표

- 주당 58달러 조건으로 발표된 당일 종가 대비 39% 프리미엄 부여 (총 지분가치 $2.2bn). RAPT의 리드 파이프라인은 ozureprubart (장기지속형 anti-IgE 단클론항체)로, 식품 알러지 예방 목적으로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임상2b상 진행 중(2025년 10월 개시). 기존의 치료제인 졸레어가 2~4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 대비, 12주로 연장한 것이 차별점
- RAPT Tx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은 전임상 단계의 미공개 염증 적응증 파이프라인, 한미약품과 공동개발한 CCR4 표적 경구용 면역항암제인 '티부메시르논(tivumecirnon)'임. 티부시메시르논은 Keytruda 병용으로 위암 대상 P2을 진행하였고, 작년 2월 ASCO GI에서 EBV(+) 위암 환자 10명 대상 ORR 60%, mPFS 10.4개월이 확인된 바 있음

[1/21] Merck-Moderna, mRNA 기반 항암 백신 intismeran의 항암 효과 확인

- Intismeran은 최대 34개의 신항원을 코딩하는 합성 mRNA를 LNP(lipid nano particle) 기술로 하여, 암세포에 대한 T 세포 반응을 유도함. 고위험 흑색종 환자 대상 intismeran과 Keytruda 병용요법 임상2b상(KEYNOTE-942)에서, Keytruda 단독 대비 병용요법이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2년 시점 44%, 3년 시점 49% 및 5년 추적 49% 감소시킴(HR=0.510).
- 수술 후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3상(INTerpath-001)은 이미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completion date 2029.10.26). 그 외 다양한 고형암 대상으로 임상2상, 3상 동시에 진행 중

[1/28] Roche,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CT-388(Q1W SC)의 우수한 임상2상 결과 발표

- CT-388은 주1회 SC투여 비만 치료제로 GLP-1/GIP 이중 작용제. 비만 성인 469명 대상 임상2상 결과, 48주차 위약 보정 기준 max.24mg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22.5%, 중단율 위약 보정 후 4.6%로 양호한 결과를 보임. 4Q26 임상3상 진입 계획.
- 유사하게 이중 작용제인 Tirzepatide의 경우(SURMOUNT-1), max.15mg에서 72주차 위약 보정 후 평균 17.8% (Efficacy Estimand 기준 최대 1.94%) 체중 감소하였고, 중단율은 위약 보정 후 2.38%. 이와 비교하면 CT-388의 결과는 체중 감소율 면에서 더 우수하고, 중단율은 아쉬우나, 중단율이 5% 미만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평가됨.

[1/29] Eli Lilly, 독일 유전자 편집 플랫폼 개발사 Seamless Therapeutics와 최대 $1.12bn 규모의 계약 체결

- Seamless Tx와 청각장애 치료제 개발할 것. 11억2천만 달러(1조6천억, 선급금+연구개발비 포함, 로열티 별도) 규모의 공동연구 개발 계약. Seamless Tx는 Zinc-Finger라는 특수한 인지자를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효소의 표적 선택성을 높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 (ZF와 재조합효소를 링커로 연결함). CRISPR에서 발전된 버전으로, CRISPR는 DNA를 자르고 교정하는 것 까지만 하고, 붙이는 과정은 세포에게 맡기는 것. Seamless 기술은 DNA를 자르고 유전자 교정 후 직접 붙여주어, 세포가 DNA가 잘린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스로 복구하다가 종종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위험이 낮음.
- 알지노믹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으나, 청각장애 치료에 대한 Lilly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영향 크지 않았음. 알지노믹스와의 기술적 차이는 DNA를 직접 타겟 (알지노믹스는 2차 가공물인 mRNA 타겟), DNA 내 Zinc-Finger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가 존재해야 하는 한계와 그러한 기능을 갖는 효소 complex를 설계해야 함.

[1/29] Halozyme Therapeutics, SC 제형화 플랫폼 보유 기업인 Surf Bio 인수

- Surf Bio는 고농축 SC 약물전달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Elektrofi를 인수 ($900mn)한 이후 두 번째 인수. 선급금 $300mn 및 마일스톤 $100mn으로 최대 $400mn.
- Surf Bio가 보유한 기술은 auto-injector로 최대 500mg/ml 수준의 고농도 제형을 SC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고분자 등의 조합을 활용하여 입자 내 활성물질을 압축시키는 기술로서, Elektrofi와도 기술에 사용되는 구성물질이 유사한 편. (Surf bio PCT 출원 WO2026-011155 참고)

[1/30] 에이비엘바이오, Sanofi의 ABL301 개발 후순위로 결정함에 따라 주가 하락

- Sanofi가 임상 순위 조정을 하며, RIPK1 억제제도 ecitasertib, SAR445514(BCMA 표적 NK 세포 활성화제), SP0237(mRNA 독감 백신)와 함께,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기술도입한 파킨슨 치료제 SAR446159(ABL301)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 '26년 내 ABL301의 임상2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기대가 있었기에 주가 하락.
- 이번 순위 조정은 ABL301의 임상 전략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기 어려우나 Grabody-B 플랫폼에 대한 것이 아닌, ABL301의 타깃인 α-synuclein과 관련된 것.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미확정되어 전체 시가총액에서 ABL301 부분 만큼 감소가 불가피 하나, Grabody-B 자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추가 파트너십 확보는 문제 없음

[1/30] AstraZeneca, CSPC(CN)와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파트너십 체결 (총 규모 $4.7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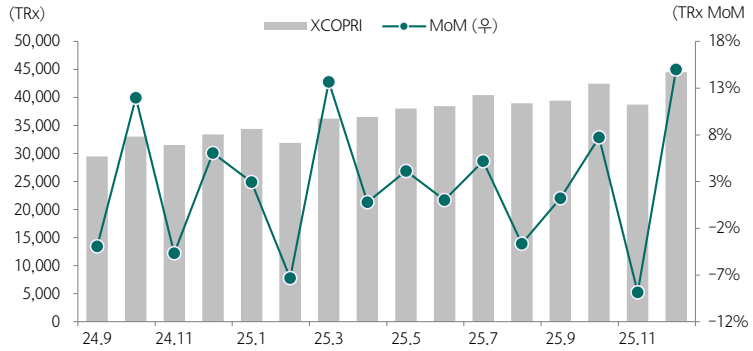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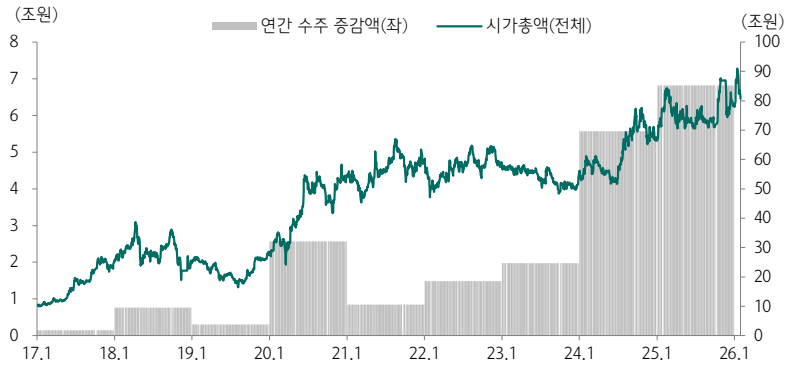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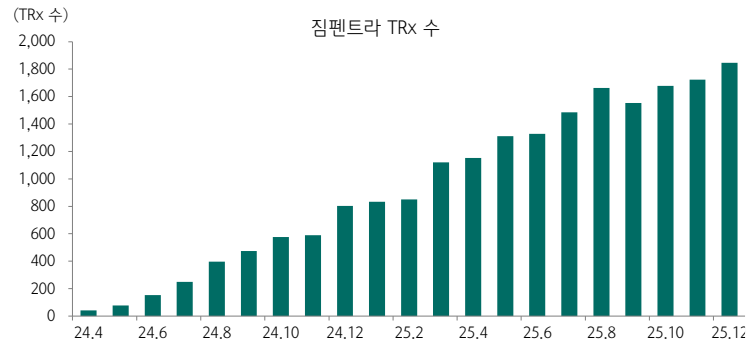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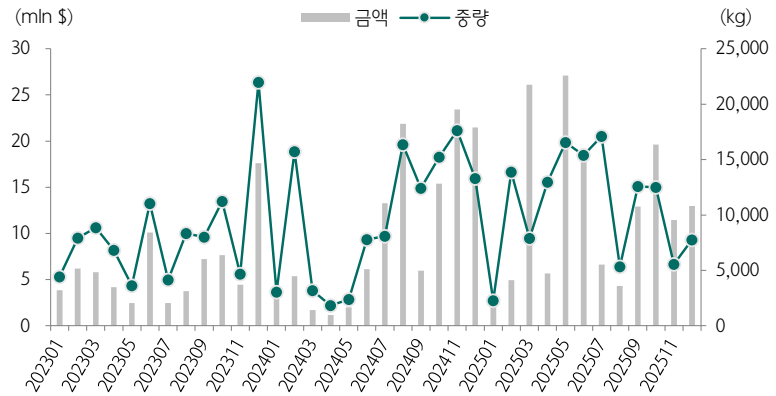
- CSPC와 월 1회 장기지속형 펩타이드 계 비만 치료제 8개 프로그램 공동 개발, 계약금 $1.2bn, 마일스톤 최대 $3.5bn. 매출 달성 시 최대 $18.5bn. 두 자릿수 매출 로열티. 리드파이프라인은 SYH2082로 월 1회 주사형 GLP-1R/GIPR 듀얼 작용제, 임상1상 진입 준비 중.
- 장기 지속형은 LiquidGel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기술의 구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Gel"인 경우 단순히 순환형의 microsphere가 아닌 In-situ form(ISFD)의 제형일 가능성 높음. ISFD로 투약하는 펩타이드계 약물로 Eligard, Camcevi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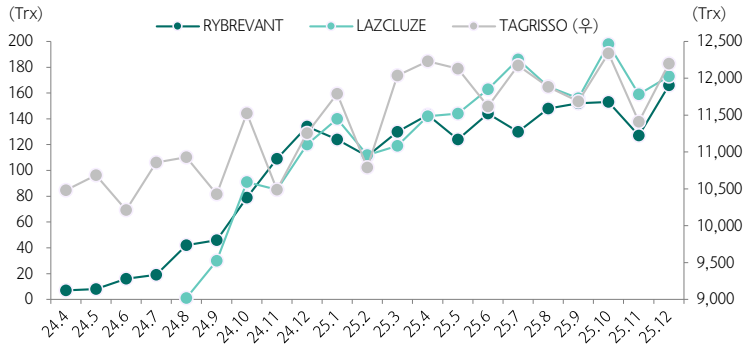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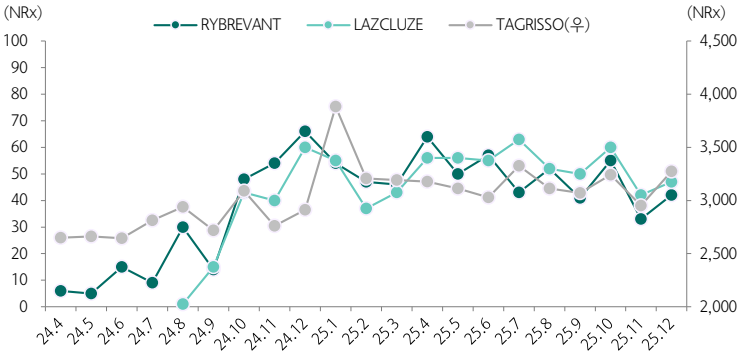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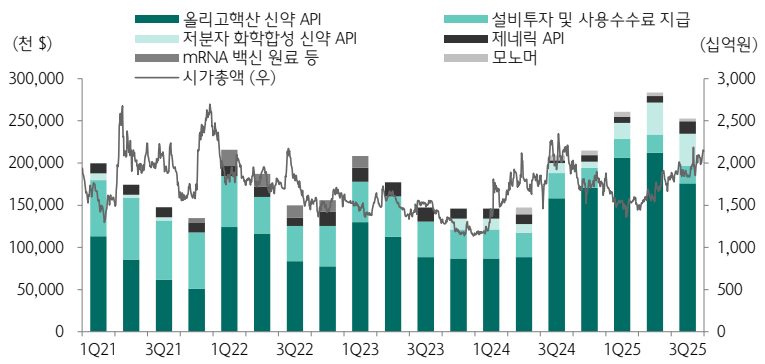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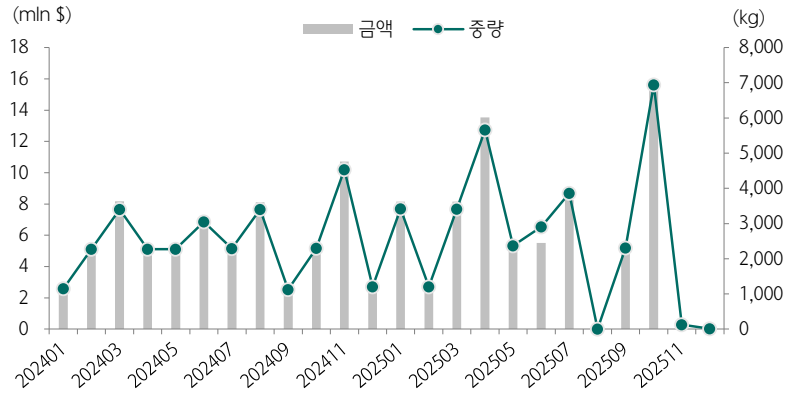
도표 16. 1H26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관련기업*
2월	02월 23일	World ADC-Europe (유럽 월드 ADC)	World ADC LONDON 2026	London, UK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2월 26일	ASCO-GU (ASCO 비뇨기과 학회)	ASCO Genitourinary Cancers Symposium	San Francisco, USA	셀비온
	02월 27일	AAAAI (미국 알레르기, 천식 및 면역학회)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Annual Meeting	Philadelphia, PA	유한양행/지아이이노베이션 (예상)
3월	03월 17일	AD/PD (알츠하이머/파킨슨병 학회 국제학술회의)	Advances in alzheimer's and parkinson's therapies an AAT-AD/TD Focus Meeting	Copenhagen, Denmark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3월 23일	Bio-Europe (바이오 파트너쉽 유럽 행사)	Bio-Europe 2026	Lisbon, Portugal	인투셀
	03월 25일	ELCC (유럽 폐암학회)	European Lung Cancer Congress 2026	Copenhagen, Denmark	유한양행(예상)
4월	04월 10일	ASH (미국 혈액학회)	2026 Highlights of ASH® in AISA-PACIFIC	KUALA LUMPUR, MALAYSIA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4월 17일	AACR (미국 종양학회)	AACR ANNUAL MEETING 2026	San Diego, USA	~~지아이이노베이션~~, 동아ST, 셀트리온(예상), 에피스, 리가켐바이오
	04월 28일	Bio-China (바이오 파트너쉽 중국 행사)	Bio-China 2026	Shanghai, China	인투셀
5월	05월 02일	DDW (소화기계 학회)	Digestive Disease Week	Chicago, USA	HK이노엔
	05월 06일	ESMO breast cancer (유럽 유방암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Breast Cancer 2026	Berlin, Germany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5월 27일	EASL (유럽 간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Congress 2026	Barcelona, Spain	한미약품(예상)
	05월 29일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2026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hicago, IL	리가켐바이오(NextCure, Cstone 등), 한미약품(예상), 지아이이노베이션
6월	06월 05일	ADA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26	New Orleans, LA	한미약품(예상), 동아ST
	06월 13일	ENDO (미국 내분비학회)	Endocrine Society ENDO 2026	Chicago, IL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16일	EACR (유럽 암연구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Rotterdam, Netherlands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22일	Bio-USA (바이오 파트너쉽 미국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San Diego, USA	인투셀

자료: 하나증권

도표 17. 국내 주요 제약사의 수출 비중, 주요 품목, 관련 지표 (Biweekly 발간 기준일 1/18 이후 변동 없음)

기업명	수출 비중	주요품목	관련 지표
SK바이오팜	100.0%	• 엑스코프리(US): 총 매출 80%	[Xcopri 미국 처방수와 월별 변동률]  *자료: Bloomberg
삼성바이오로직스	96.9%	• 로직스: CDMO • 에피스: BS	[로직스 연간 수주 증감액과 시가총액(공시일 기준)]  *자료: Dart, 하나증권
셀트리온	89.7%	• 짐펜트라 매출액 : 4Q24 280억 : 1Q25 134억 : 2Q25 226억 : 3Q25 281억	 * 자료: Bloomberg
녹십자	29.9%	• 주: 알리글로 • 부: 알부민 등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글로벌 수출 동향]  * 자료: Trass (국내지역 : 충북 청주시/ 품목 :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높은 중량과 높은 금액이 일치할 때 알리글로 향으로 해석

유한양행	20.6%	• 기술료 수익, 원료 등	해외사업부문의 매출은 유한화학 원료 생산 매출 및 그 원료의 수출 그 외 라이선스 수익 [Rybrevant, Lazcluze 월 처방수 (좌,우: TRx)]  [Rybrevant, Lazcluze 월 신규처방수 (좌,우: NRx)] 
에스티팜	95.9%	• 제품(API) 매출 비중 : 수출 매출 78.3%	[분기별 누적 수주잔고 및 시가총액] 
대웅제약	16.8%	• 나보타 수출액 : 총 수출 84% • Evolus 가이던스 : -14% 하향	[화성시(향남 나보타 공장 소재) 미국향 톡신 수출 동향]  *국내 전체 미국향 톡신 전체 수출량 중, 화성시 수출량이 매월 90% 전후반 유지 중 * 자료: Trass (품목: [3002491000] 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립토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국내지역 : 경기 화성시/ 국가 : 미국)

주: 수출 비중은 3Q25 기준
자료: 각 그래프에 표시, 그 외 Dart,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1.30 기준, 다음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시 음영 표시)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4Q24	3Q25	4Q25F	2025F	2026F	4Q24	3Q25	4Q25F	2025F	2026F
셀트리온	48,502	1,064	1,029.0	1,268.9	4,102.1	5,055.6	196.4	301.4	429.9	1,125.4	1,632.7
삼성바이오로직스*	80,778	1,256.4	1,660.2	1,308.8	4,436.3	5,291.3	325.7	728.9	586.3	2,065.6	2,440.3
(TP: 2,050,000원)											
삼성에피스홀딩스*	15,079	nr	nr	418.5	1,661.1	1,979.8	nr	nr	96.8	443.6	501.5
(TP: 610,000원)											
유한양행	8,637	496.1	570.0	584.6	2,232.6	2,446.8	-11.8	22.0	46.7	127.3	181.1
녹십자	1,927	440.9	609.5	483.7	1,961.6	2,142.8	-10.1	29.2	1.1	65.1	96.3
한미약품	6,201	351.6	362.4	422.4	1,537.2	1,656.9	30.5	55.1	69.0	243.8	272.2
(TP: 540,000원)				(F. 389.8)	(F. 1,504.3)	(F. 1,569.9)			(F. 65.3)	(F. 239.9)	(F. 280.9)
대웅제약	1,957	367.9	411.8	402.9	1,579.9	1,744.2	38.7	56.9	44.0	200.3	230.9
HK이노엔	1,595	235.8	260.8	289.7	1,060.9	1,131.6	24.4	25.9	40.0	112.4	127.4
종근당	1,180	415.4	429.8	427.2	1,685.0	1,768.2	6.8	21.0	17.4	72.7	86.5
휴온스글로벌	643	202.5	211.2	nr	nr	nr	26.3	20.3	nr	nr	nr
동아에스티	513	178.6	215.9	194.2	738.9	823.4	-7.3	14.0	7.1	34.9	45.2
보령	794	256.9	280.0	263.5	1,035.6	1,093.3	14.6	29.4	24.3	90.0	107.6
SK바이오팜	9,241	163.0	191.7	195.9	713.8	918.3	40.7	70.1	54.9	217.4	338.5
(TP: 160,000원)				(F. 190.6)	(F. 703.0)	(F. 934.1)			(F. 48.3)	(F. 205.9)	(F. 382.0)
동국제약	850	210.9	226.8	233.2	917.2	1,013.0	17.7	24.8	24.7	97.0	114.3
에스티팜	3,304	115.7	81.9	128.4	330.7	406.8	22.8	14.7	26.5	55.7	72.8
셀트리온제약	3,193	135.6	138.2	nr	nr	nr	10.5	16.1	nr	nr	nr
JW중외제약	724	187.9	200.0	nr	nr	nr	18.1	32.0	nr	nr	nr
일동제약	1,204	155.7	145.5	142.8	554.1	588.7	8.4	6.8	10.5	26.1	37.2
대원제약	259	145.1	143.9	153.9	599.6	640.2	3.2	-10.4	0.6	-1.8	15.2
제일약품	214	186.6	134.8	nr	nr	nr	2.4	9.8	nr	nr	nr
삼천당제약	11,271	55.2	58.0	nr	163.0	235.0	-0.5	3.4	nr	nr	45.0
바이넥스	533	36.0	45.4	nr	180.8	228.1	-7.1	0.2	nr	5.9	24.9

주1: 3Q25→4Q25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4Q25 실적 발표하여, 다음 분기 예상 실적을 반영한 리포트 발간 예정
주3: 종목 선정: 2025년 9월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조 이상 +a(임의) 중 선정 (제외 종목: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
자료: Quanti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유지): 5공장 ramp-up 속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

- 4Q25 실적 발표: 매출액 1조 2,857억원(YoY+35.3%, QoQ+2.2%), 영업이익 5,283억(YoY+67.8%, QoQ-16.6%),
- '26년 가이던스 제시: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미반영. 이익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OPM 50% 재현 여부는 1Q26 내 미국 록빌 시설 인수 후 약 300명의 미국 임직원 수 증가로 인한 인력 비용, 설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 우수한 실적과 매출 성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진했음. CAPA 확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대규모 CAPA 확장 소식이 부재한 중에 5공장의 ramp-up 속도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판단. 27년 내 6공장 가동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상반기 내 착공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삼성에피스홀딩스 (TP 610,000원, 유지): 분할 후 첫 실적 발표, 공식적인 성장 전략 제시

- 4Q25 실적 발표: 에피스 별도 매출액 4,294억원(+YoY+23%), 영업이익 292억원(+YoY14%)
- 일회성의 마일스톤을 제외하면, 제품 매출 YoY+28%, 영업이익 YoY+101%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유럽은 직판 구조로 변경하여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미국은 당분간 간판 구조를 유지할 것이나 품목 확대와 파트너십 강화로 매출과 이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 미국의 Organon 인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함.
- Open Innovation을 통해 차세대 ADC 신약 개발, AI 기반 신약,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한 SI 투자 지속을 선언함. 인투셀과 공동개발한 ADC 신약 SBE-303은 4월 AACR에서 우수성을 발표할 예정. SBE-303은 Nectin4 표적 항체, 인투셀의 링커, Phrontilne pharam의 독점권 확보한 NxT3를 적용하였고, 방광암 치료제로 개발할 것. FDA IND 승인됨에 따라 26년 내 본격적으로 임상1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환자 모집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연말 EMSO 등에서 중간 결과 발표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피스홀딩스는 연간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임상 스케줄에 계속 추가할 계획.

알테오젠 (TP 580,000원, 하향): 로열티만큼 중요한 건, 기술 건수의 증가

- 분쟁 현황: 할로자임의 2차 특허 보정 기한 2026/02/16. 14개의 PGR은 예상대로 최초의 PGR과 같은 스토리로 흘러가는 중. 패밀리 특허이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 독일 특허무효예비판결 2-3월 예상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명령 취소 기대. 영국은 STAY, 네덜란드 및 프랑스는 무효 심판 청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제조방법에 대한 미국 IPR 청구는 중요한 특허가 아니므로 집중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 Keytruda Qlex의 로열티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크게 낮은 2%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시장 충격이 있었음. 그러나 ALT-B4는 단순한 신약 물질과 달리 확장성이 큰 것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 상반기 내 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이 정리되어 갈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리가켐바이오 (TP 220,000원, 유지): 비학회 시즌에도 견고한 주가 움직임

- 회사는 추가 L/O를 위해 ADC Bio Better 전략과 Target Exclusive Package Deal(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되,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로 파트너쉽을 시도하는 중. 최근 1/7 ASCO GI에서 LCB14(IKSUDA, HER2)의 식도암 환자 10명 중 ORR 50% 확인하여 용량 확장 단계에 'HER2+ 식도암' 코호트 추가할 계획. '25년 10월 ESMO에서 Enhertu 불응성 환자에 대한 ORR 75% 효능도 확인함. 해당 임상1상은 '26년 9월 종료 예정 (NCT05872295).
- '26년은 Ono(LCB97), SOTIO, IKSUDA의 신규 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 높음. 4월 AACR에서 자체 개발 중인 신규 파이프라인 공개, 5월 ASCO에서 IKSUDA, Cstone(LCB71, ROR1-pPBD)의 특정 Cohort에 대한 임상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함. 요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Enhertu 불응성 환자에 대한 효능, 부작용 관련 이점(특히, 간질성 폐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관심종목): MASH 치료제 DD01, 뇌질환 치료제, RLT 등 비만 이후에도 관심 가질 파이프라인 다수

- MASH 치료제는 궁극적으로 Fibrosis 개선을 보여줘야 하고, Top line 발표는 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투약은 종료하였고, Top line 발표 시기는 5월경.
- JPMHC에서 Pfizer가 노골적으로 Ultra-Long-Acting에 관심 가짐을 보이며 주가 하락. 그러나 MASH 치료제 외에도,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깃, RIPK2 선택적 저해), Lilly가 관심 보이는 RLT 개발사 Z-alpha의 지분 보유(15%)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NLY02는 공동개발사 퍼스트바이오가 내년 1분기 기술성평가 확보하고 5~6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하는 계획인 만큼, 상반기에 L/O 소식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

셀비온 (Not Rated, 관심종목): 2월 ASCO-GU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 모을 것, 키트루다 병용 첫 환자 투약은 2월로 연기

- 임상2상 단독 투여 CSR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12월30일 예정대로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허가신청 완료. 26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기대함 (현재 플루빅토 국내환자 1회 투여 3천만원, 임상 기준 최대 6회 투여). 상세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2월 26일-28일 개최되는 ASCO-GU(San Francisco, USA)에서 발표할 예정.
-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승인받아 임상수행기관에서 심의도 통과한 상태.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임상계획에 임상의의 의견을 몇 가지 반영하여 환자 첫 투약은 2월로 연기. 임상2상 성과가 매우 우수하고, 키트루다라는 신뢰도 높은 약물과의 병용 투약하므로 빠르게 환자 모집하여 '26년 하반기 내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까지 기대함. 중간 결과 성과에 따른 MSD로의 기술이전도 기대.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mOS를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한미약품 (TP 540,000원, 유지): 4Q25 실적 발표, 매출과 이익 모두 서프라이즈 전망

- 4Q25 실적 발표일은 2월5일 오후4시30분. 4Q25 실적은 별도 기업 모두 3Q 보다 더 개선될 것. 연말 특수적인 비용 증가(PS, 수수료, R&D 비용 처리 등)를 감안하여도 매출 및 이익 모두 서프라이즈일 가능성 높음.
- 에페글레나타이드(국내 비만치료제 신약)는 12월17일 국내 품목허가 신청하여 26년 하반기 시판허가 획득 및 출시 예정되어 있고,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도 체결하여 회사의 약속대로 시장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것. '26년 상반기 MASH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임상2b상 발표(학회 박표시 5/27 EASL 유력), 하반기 UCN2 임상1상 결과 확인 등 주가에 유의미한 R&D 이벤트가 많고 실적 회복도 확인되어 '26년 최선호주 유지.

SK바이오팜 (TP 160,000원, 유지): 엑스코프리의 시장 확대 중이나, 당장의 성장 요소 부족

- 12월 엑스코프리 처방량은 다시 회복. 엑스코프리 25년 매출액은 가이던스 상단에 근접할 수밖에 없음 (4Q25 특수적인 매출할인을 고려해 $447mln 추정). 우호적인 환율 분위기 유지 중이고, 올해는 4Q25에 나가는 물량을 조절하여 1Q26에도 실적은 꾸준히 성장할 것. 한편 세노바메이트 시장 확대 중으로, 국내 11월 초, 중국 12월 시판 허가 획득. 일본은 9월 IND 신청했으니, 26년 하반기에 시판 허가 받을 것. 26년-27년 꾸준히 매출 상승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음.
- 12월 첫번째 RLT 파이프라인 임상 1상 IND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돌입하였으나, R&D 비용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2nd Product 도입은 필요한 상태. 단기에 확인 가능한 성장 요소가 있어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내년 GI-101a, 102 임상 발표에 주목

- 주력 파이프라인이던 GI-102의 경우, SC 단독 투여 1b상, 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GI-102+엔허투 투약 2a상에 대해 '26년 내 임상 발표 예상. 단독 투여 1b상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환자 50명 예상), 임상 종료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GI-101a는 4월 AACR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5월 ASCO에서 발표할 것. 발표할 데이터는 GI-101a+키트루다 병용 임상1상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임상2상을 준비 중 (방광암, 신장암, 폐암, 대장암)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한국은 IND 승인되어 '26년 중 임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임.

인투셀 (Not Rated, 관심종목): 에피스홀딩스의 파이프라인에 OHPAS 링커 적용, 본계약 또는 마일스톤 수령해야 주가 회복할 것

- 에피스홀딩스가 NxT3를 적용한 ADC를 방광암에 대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12월2일 FDA 신청하여 승인됨. OHPAS 링커와 공동개발한 NxT3 적용되었음에도 옵션 행사에 따른 본계약(또는 프로덕트 딜)을 체결이나 마일스톤 등 이벤트가 없는 것이 주가 부진한 이유로 판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 IND도 승인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에피스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4월 AACR에서 전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이라, OHPAS 링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을 기대.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펩트론 (Not Rated, 관심종목): 추가 물질을 평가 후 본계약 체결 이루어질 것

- 정정 공시를 통해 본계약 체결이 추가로 최대 10개월(2026년 9월)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됨. 예상 시기 보다 미뤄진 것은 추가 물질(비공개) 평가에 의한 것임. 기존에 평가하던 터제파타이드(추정) 제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에 추가 물질에 대한 제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을 제안함.
- 그 외 루프원의 국내 시판 허가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중.

인벤티지랩 (Not Rated, 관심종목): BI 추가 계약, 1H26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와의 계약도 기대

- 인벤티지랩, 펩트론, 지투지바이오 3개 사가 각자의 파트너와 장기지속형 펩타이드계 물질 제형 공동개발 및 본계약 여부를 논의 중. 그 중 인벤티지랩 또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와 공동개발/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첫 번째 제형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11월에는 그에 따른 추가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함. 개발 속도와 완성도에서 만족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판단됨. 두 번째 물질은 개발 속도가 빠른 편으로, 상반기 내 추가 물질에 대한 제형도 BI에 전달하고 평가를 받아볼 것으로 예상됨. 최근 글로벌 빅파마 및 다수의 Local pharma(ex. 자체 개발 펩타이드계 약물을 보유하는 또는 Semaglutide 이용하려는)도 공동개발 논의가 활발히 이루지고 있어, 1H26 내 계약(공동개발 예상) 체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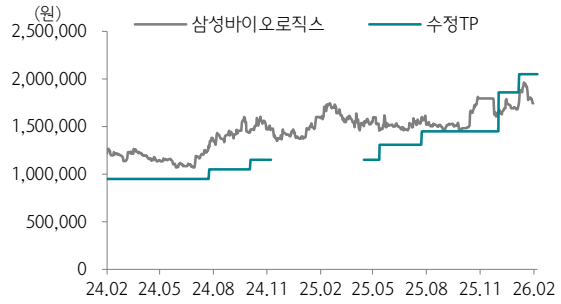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1Q26-2Q26이벤트(2026.01.30 종가 기준)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1Q26	2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745,000	17%	• ~~1월 초 4Q25 예상실적발표~~ • 6공장 증축 발표 • ~~JPM 행사에서 '26년 전망 발표~~	•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 1H26 내 6공장 증축 소식 기대
삼성에피스홀딩스	610,000	606,000	1%	• ~~1/26 4Q25 실적발표~~ • ~~JPM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IR Deck 공개~~	• 4월 AACR 참석(확정) • 5월 초 1Q26 실적발표	•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알테오젠	580,000	413,000	40%	• 미국 PGR에서 Halozyme의 보정 시도 및 합의 • 2-3월 독일 가처분신청 예비 판결	• 코스피 이전 상장(예상) • 미국 PGR 최종 심결 확인(5월 말-6월 2일) • 12월 옵션 계약 건의 본계약 체결 기대	• 1H26 내 추가 L/O 2건 이상 체결 기대 • 미국 PGR 일정 중 2/16 할로자임 정정 기일 중요 • 신규 파트너사 등장 예상 (10개 이상 논의 중)
한미약품	540,000	484,000	12%	• 2/5 4Q25 실적발표 • ~~JPM 행사에서 MSD 발표~~	•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 5월 에피노페그듀타이드 (MASH) P2b Top line 발표	• 4Q25 실적 상승 전망
SK바이오팜	160,000	118,000	36%	• 2월 초 4Q25 실적발표	• 5월 초 1Q26 실적발표	• 엑스코프리의 4Q도 매출 상승 이어갈 전망 • 2nd Product 도입 기대
리가켐바이오	220,000	203,000	8%	• '25년 이월된 L/O 1건 이상 체결 기대 • ~~JPM 행사를 통한 J&J P1 종료 및 P2 진행 여부 확인~~	• 4월 AACR 참석 • 5월 ASCO 참석 • 6월 Bio-USA 참석(예상)	• Bio Better, Package Deal의 경우 언제든 L/O 모멘텀 보유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SOTIO, IKSUDA
디앤디파마텍	NR	94,500	-	• ~~JPM 행사 참가해 발표~~	• 5월 DD01(MASH) P2 Top line 발표	• -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5,810	-	• -	• 5월 ASCO GI-101a P1(키트루다 병용) 공개	• 4월 AACR GI-101a 공개 이벤트는 5월 ASCO로 변경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인투셀	NR	50,100	-	• 마일스톤 수령 등	• -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쉽 행사를 통한 L/O 논의 (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25,600	-	• 키트루다 병용 투약 시작 • 2월/26 ASCO-GU에서 P2 상세 데이터 발표	• -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2H26 이후 예상)
펩트론	NR	305,500	-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9월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73,900	-	• 1건 이상의 공동개발 또는 L/O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 예상되었던 BI 추가 계약은 11월에 체결됨 • 1Q26 내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로 1건 이상 기대
지투지바이오	NR	77,600	-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 추가 공동개발계약 기대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예상실적 발표하는 기업.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로직스와의 연결기업일 때 예상실적 발표하였으나, 이번 4Q25 예상실적은 발표하지 않음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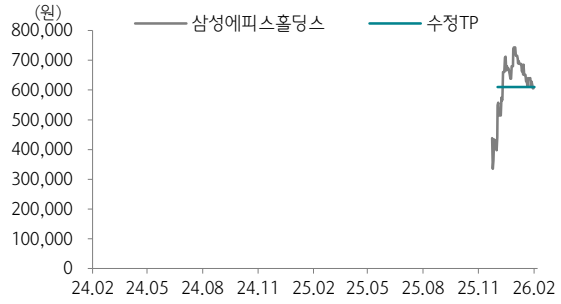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1,450,000	10.83%	1.09%
25.5.13	BUY	1,310,000	15.45%	11.45%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150,000	32.34%	17.23%
24.7.25	BUY	1,050,000	35.65%	24.75%
23.10.5	BUY	950,000	19.39%	8.1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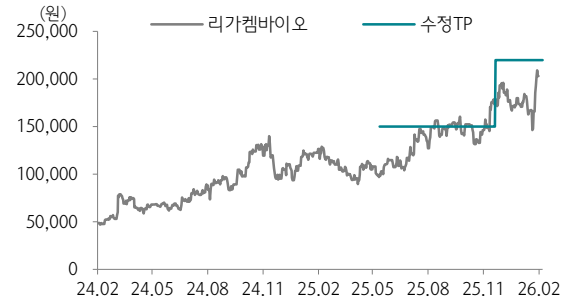
삼성에피스홀딩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2.3	BUY	610,000		
25.11.28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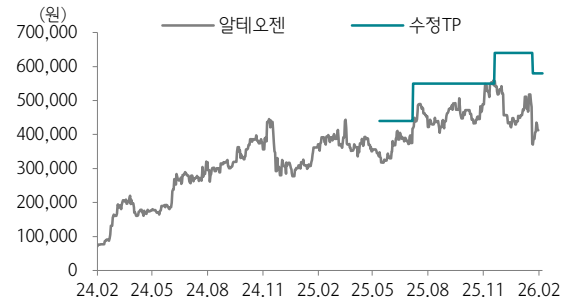
리가켐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5.25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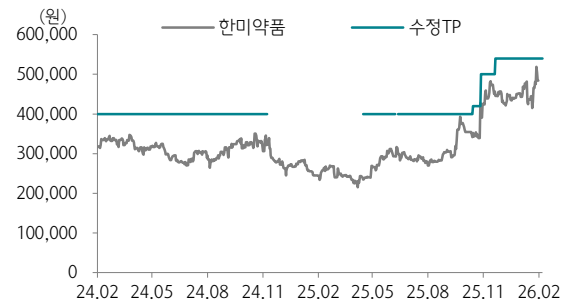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25.11.20	BUY	640,000	-26.04%	-15.31%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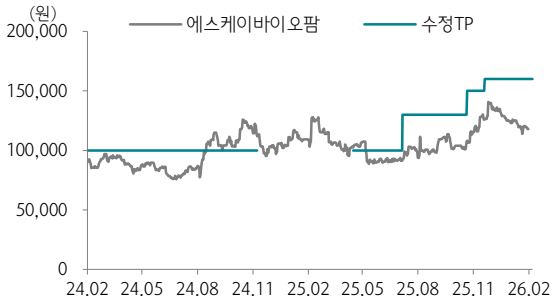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540,000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3	BUY	400,000	-24.33%	-1.75%
25.6.9	Not Rated	-	-	-
25.5.9	BUY	400,000	-26.51%	-22.1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0	BUY	160,000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6.27	BUY	100,000	-7.70%	-6.30%
25.4.16	담당자 변경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2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2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33%	3.67%	0.00%	100%

* 기준일: 2026년 01월 29일